

스땅달 일기 연구*

원 윤 수

(불어불문학과 교수)

몽테뉴는 그의 수상록에서 모든 인간은 자신 속에 인간조건의 한 본보기를 지니고 있고, 우선 자신을 아는 것이 중요하며, 그것을 인생공부의 첫 걸음으로 여긴다고 쓴 바 있다. 물론 몽테뉴의 이 지적을 스땅달에게 단순하게 적용시킬 수는 없겠지만 특히 젊은날의 스땅달의 일기를 보면, 몽테뉴의 글이 떠오르는 것을 막을 길이 없다. 그것은 스땅달 일기의 특징이 무엇보다도 자신을 알고자 하는 철저한 추구의 면모를 보여 주고 있기 때문이다. 그의 일기는 스땅달이 나름대로의 독창성을 띤 작가이면서 동시에 프랑스의 전통적인 사상과 연결되어 있는 작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준다.

스땅달 일기에선 늘 나를 아는 것(*connaître le moi*)에 대한 관심과 노력이 두드러진다. 그의 일기를 읽어가면 자신을 알리는 노력이 자신을 만들어 가는 과정과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작가와 작품과의 관계가 누구보다도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스땅달에게 있어 그의 일기는 그의 문학 작품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몫을 차지할 것이다.

따라서 일반적인 의미로서의 일기의 뜻을 간략히 되새겨 본 다음, 스땅달에 있어서 일기란 일반적인 뜻의 그것과 어떤 면에서 같으며 또한 다른 것인가를 알아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라루스 사전은 일기를 어느 사람의 삶과 관계 있는 일들을 하루하루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정의내리고 있으며, 로베르 사전에는 나날의 사건 이야기 또는 그와 같은 이야기의 쓰기로 되어 있다. 다시 말하면 일기란 하루 하루 일어난 일들과 생각을 기록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을 기록한다고 해도 하루에 일어난 일과 생각을 온통 다 쓸 수는 없는 것이며, 선별적으로 선택하고 또 어느정도 가다듬어 글을 쓰게 될 것이다.

우리는 스땅달의 일기의 특징을 살펴보는 데 있어서, 우선 그의 일기만이 지니는 독특한 면을 집중적으로 관찰하고 그것이 그의 자아형성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살필 것이다. 그런 다음으로 일기 속에 어떤 문제가 제기되며 스땅달은 그것과 어떻게 대결하는가를, 또한 그것이 그의 인격을 형성하는데 있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를 보고, 특히 다른 누구보다도 삶과 작품을 떼어 놓을 수 없는 스땅달¹⁾에 있어서 일기란 과연 무엇인가를 관찰할 것이다.

행복의 추구라는 문제는 스땅달 소설의 중심과제이며 우리는 수많은 그의 서한에서 이

* 이 연구는 1990년 서울대학교 발전기금 대우학술연구비지원에 의해 수행되었음.

1) Stendhal, *Œuvres intimes I* (préface de Del Litto), Edition établie par Del Litto, Gallimard, 1981, p. 9.

문제가 거론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또한 그것은 그가 젊었을 때부터 추구해 오던 꿈이었다. 18살 때, 스탕달은 이렇게 적고 있다.

Presque tous les malheurs de la vie viennent des fausses idées que nous avons sur ce qui nous arrive. Connaître à fond les hommes, juger sainement des événements, est donc un grand pas vers le bonheur.²⁾

인생의 거의 모든 불행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에 대한 그릇된 생각에서 비롯된다. 따라서 인간을 철저히 알고 일어난 일들을 바르게 판단하는 것이 행복의 크나큰 첫 걸음이다.

이와 같은 중심사상은 그의 일기에 일관되어 흐르고 있으며, 그의 대표적 작품들 속에서 움직일 수 없는 뼈대가 되고 있다. 따라서 그의 일기가 지니는 독창성을 이해하는 것은 그의 문학작품의 특징을 이해하는 길도 될 수 있을 것이다.

앞에서 말했듯이 스탕달 작품은 다른 누구의 작품보다도, 그 작가와 문자 그대로 일체를 이룬다. 그의 삶과 작품이 떼어 놓을 수 없는 관계를 지녔다는 사실이, 다른 작가들에게서는 볼 수 없는 스탕달의 두드러진 독창성이라고 할 때, 그의 일기를 좀더 가까이 그리고 자세히 보는 것은 흥미있는 일이며 또한 중요한 작업일 것이다. 어떤 의미에선, 일기가 한 개인의 삶과 사고를 살펴보기 위한 맑은 거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의 일기에 대한 고찰은 그의 삶과 생각에 대한 고찰이 될 수도 있다. 더욱이 삶에 대한 생각이 영글기 시작하는 스무살 미만 나이 때의 일기는 그의 문학작품을 깊이 이해하고자 하는 우리에게 진실하고도 귀중한 자료가 될 것이다.

그는 1801년에 다음과 같은 일기를 쓰고 있다. 이것은 Gallimard판 스탕달 일기의 첫 페이지이기도 하다.

Milan, le 28 germinal au IX [18 avril 1801]

J'entreprends d'écrire l'histoire de ma vie jour par jour. Je ne sais si j'aurai la force de remplir ce projet, déjà commencé à Paris. Voilà déjà une faute de français; il y en aura beaucoup, parce que je prends pour principe de ne pas me gêner et de n'effacer jamais. Si j'en ai le courage, je reprendrai au 2 ventôse, jour de mon départ de Milan, pour aller rejoindre le lieutenant général Michaud à Vérone.³⁾

미라노 공화력 9년 아월(芽月) 28日 [1801년 4월 18일]

이제 하루하루 내 생활의 역사를 쓰고자 한다. 이미 파리에서 시작한 이 계획을 이행할 힘이 내게 있는지 어떤지 모르겠다. 벌써 프랑스어의 잘못을 하나 저지르고 있다. 앞으로도 틀릴 것이 많을 것인데, 그것은 거리낌없이 쓰고 절대로 지우거나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삼기 때문이라. 그런 마음 가짐으로, 풍월(風月) 2일로 거슬러 올라 가겠다. 그 날은 베로나에서 미쇼장군에게 복귀하기 위해 내가 밀라노로 출발한 날이다.

파리에서 쓴 일기는, 그에 의해 파기되었는지 찾을 길이 없다. 따라서 위에 인용한 일기

2) Stendhal, 위의 책, p. 31.

3) Stendhal, 위의 책, p. 3.

가 우리가 볼 수 있는 첫 일기이다. 거기서 그는 하루하루, 자신의 생활의 역사를 기록하겠다고 했다. 그렇다면 그의 일기는 하루 하루의 날자가 적힌 특정한 일기장에 작가로서의 어떤 목적을 갖고 쓴 일기일까? 다시 말해서 어느 날엔가는 출판될 가망성이 있다고 생각해 후일의 독자를 염두에 두고 쓴 둔 일기일까?

그 일기를 쓰기 시작한 당시에는 전혀 그런 고려가 없었던 것 같다. 따라서 그것은 어떤 작가로서의 계획이기보다는, 무엇인가 자기자신을 세우고 다듬기 위한 모색으로서의 행동이 일기쓰기의 형태로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비록 프랑스어를 틀리게 썼다 하더라도 그것을 지우지 않고, 그대로 생생한 기록으로 두겠다는 의욕은 글쓰는 행위 자체에 무슨 뜻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호기심을 불러 일으키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참고로 삼고 있는 델 리프가 편집한 Gallimard판의 스팡달 일기의 결정판은 어떤 면에선, 재구성한 일기이다. 왜냐하면 여기 저기에 써 놓은 것을 편집자가 모아 놓은 것이기 때문이다.

스팡달은 평생동안 쓰는 것을 그치지 않은 사람이다. 그는 젊었을 때부터 어떤 상념이 떠오르면 메모지에 그 내용을 적었고, 독서하는 동안 언뜻언뜻 떠오르는 생각들은 그 책의 여백에다 적어두었다. 그러므로 일기를 정의하는 기준을 종이의 형태라든가 매체의 형태 같은 물질적인 것에 두지 않고, 형식적인 면, 즉 년, 월, 일(日)을(datation) 기입하는 것에 두겠다고⁴⁾ 한 B.디디에의 주장은 스팡달의 경우에 특히 타당성을 지닌다. 앞서 일기에서도 보았듯이, 스팡달은 아무 거리낌 없이, 그것이 메모지이건 책의 여백이건 물질적인 여건에 구애받지 않고 아무데나 자기 생활의 역사를 자유롭게 쓰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그와 같이 구성된 일기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가? 특히 초기의 그의 일기는 사춘기 때의 일기이다. 그 속에서 우리는 초조하게 그러나 소박하게 자아를 모색하고 있는 어린 스팡달의 모습을 만날 수 있으며, 타인과의 관계에서 받은 여러가지 인상에 대한 꾸밈없는 기록을 볼 수 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그 일기의 내용이 모두 단편적이고 연속성이 결핍되어 있다는 점이다.⁵⁾ 이를 B.디디에는 불연속성(discontinuité)이라고 규정하면서, 이것은 생활과 일기의 고유한 특성이며 그 일기가 있는 그대로의 생활을 기록할 경우는 한층 더 그러한 성격을 띤다고 했다.⁶⁾ 그리고 디디에는 이와 같은 불연속성에 통일을 주고 뜻을 부여하며 계속을 보장해 주는 것이 바로 예술이라고 주장했는데, 스팡달의 일기는 예술 이전의 가공되지 않은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적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스팡달은 자신의 행동을 묘사하기 보다는 차라리 행동하는 것을 더 좋아했다. 그는 분석하고 묘사하느라 자칫 생활감각을 잃어버리고, 산다는 즐거움을 빼앗길까 두려워 해 가끔

4) B. Didier, *Stendhal autobiographe*, P.U.F., 1983, p. 54.

5) 젊은 날의 일기에 두드러진 이 불연속적인 문장 속에서 단편적이긴하나 후에 그의 문학작품에서 드러날 간결하고 단순한 문체의 맹아를 찾아 볼 수 있을 것이다.

6) B. Didier, 위의 책, p.108 참조.

딜레마에 빠지기도 했지만, 사물에서 받은 인상을 그 자리에서 즉시 적어두고, 그것을 가장 완벽하게 표현해줄 문체를 찾는데 노력을 집중했다.

스땅달은 너무 쓸 것이 많기 때문에 아무 것도 쓰지 않는다고 적고 있다.⁷⁾ 그러나 아무 것도 쓰지 않으므로해서 자신의 독창성을 지키고 일그러지지 않는 온전한 삶을 살려는 현자(賢者)와는 달리 무엇인가 글을 쓰기로 작정한 그는 인간의 마음을 묘사하는데, 다시 말하면 인간의 마음을 인식하는데 자신의 일기를 집중하고자 했으며, 자신만이 가질 수 있는 독특한 문체를 갖추으로써 특이한 일기를 쓰게 되었다.

보통 청춘일기는 과장된 자기 성찰과 그에 따른 고뇌 때문에 관념적이 되기 쉽고, 격언과 잠언(箴言) 같은 거창한 표현으로 가득 차기 쉽다. 그러나 스땅달 일기에선 그런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 왜냐하면 <나는 누구인가 Qui suis-je?>를 검토하는데 있어 철저히 <자신을 알라 Nosce te ipsum>를 추구했기 때문이다. 그는 일기를 통해 자신에 대한 진지하고도 끈질긴 교육을 꾀했다. 일기를 보면 스땅달은 아무 것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수많은 책, 그 책의 내용에 대한 비판적 수용, 그리고 지치지 않고 본 연극, 그 대본 및 연출 그리고 배우들에 대한 진지하고 신랄한 비평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사교계에서 만나는 사람들, 친구와 친척들과의 관계 그리고 그가 능했던 대사(臺詞) 낭독 이야기, 상상과 현실 사이의 괴리가 심한 사랑 이야기 등이 수없이 적혀 있다.

이러한 것들을 일기에 쏟으로써 그는 자신과 냉철하게 대화할 수 있었고 또한 자신을 올바르게 보고 자신을 제대로 알 수 있는 계기, 자신을 형성할 수 있는 좋은 계기를 가지게 된 것이다. 따라서 일기는 그의 인격형성기에 자기 변혁의 장이 되기도 한 셈이다. 다시 말하자면 청춘기에 있어서의 자신을 알려는 노력은 곧 자기 변혁의 그것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그것을 디디에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Pourtant le journal ne tend pas d'abord à réformer le moi, mais à le connaître, ou plutôt toute réforme suppose une connaissance, et cette connaissance par elle-même est formatrice. On a trop souvent insisté sur cette fonction du journal—en particulier chez Stendhal—pour que nous nous y attardions longuement.⁸⁾

반면 일기는 먼저 나를 변혁코자 하지 않고 나를 알고자 한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자면 모든 변혁은 앎을 전제로 하고 그 앎 자체가 인간을 형성시켜 주는 것이다. 일기의 그와 같은 기능에 대해 너무 자주 강조들을 해 와서—특히 스땅달에게 있어서—그것에 대해 장황하게 이야기를 늘어 놓을 필요가 없다.

따라서 스땅달의 일기에는 문학성(littéarité)이 배제되어 있다. 왜냐하면, 문학에는 그것만이 갖는 특수한 관습과 거짓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그의 일기가 생활의 속기록

7) <J'ai trop à écrire, c'est pourquoi je n'écris rien.> (Stendhal, 위의 책, p. 77).

8) B. Didier, 위의 책, pp. 78-79.

(sténographie)은 아니다. 서두에 말한 바 있지만 거기에는 반드시 선택이 있고 나름대로의 요약이 있는 것이다. 그 결과 문체가 있게 되고, 형식에의 탐구가 따르게 된다. 더욱이 그것이 거짓없는 앎을 위한 자신과의 대화일 경우엔 자신의 인생관과 직결되는 심미적 배려와 연결되는 것이다. 사물들의 인상을 즉시로 적는 것 그리고 그 사물들을 정확하게 이해시킬 수 있을 표현의 완벽함을 추구한다는 서로 양립할 수 없는 두 욕구 사이의 갈등을 그의 일기에서 보는 것은 흥미로운 일이다.⁹⁾

그는 1805년 1월 15일에 이렇게 쓰고 있다.

Je veux, en composant, que chaque mot soit parfait; je considère les conditions de sa perfection, leurs bases; à propos de cela, je les discute à cause de la crainte de me tromper, et qu'une erreur devenue habituelle ne soit pas aperçue. J'ai arrêté, depuis deux ans peut-être, de rejurer tout à toutes les occasions qui s'en présenteraient; je le fais, ça m'épargne, me fait passer à réfléchir le temps d'agir.¹⁰⁾

나는 쓰면서 개개의 말이 완벽하기를 원한다. 나는 그것이 완벽해지기 위해 필요한 여러 조건, 그 조건들의 기초를 고찰한다. 그것에 관해, 그것들에 이의를 제기해보기도 하는데, 그것은 틀리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그리고 틀리는 것이 습관화되어 눈에 띄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때문이다. 아마 이년전부터 나는 어떤 경우건 무엇이든 다시 판단하는 것을 멈추었다. 그렇게 하면 갈팡질팡하게 되고, 행동해야 할 시간을 반성을 하면서 지나버리게 되기 때문이다.

위의 글을 보고 B.디디에는 과학자와 같은 철저함과 세심함을 엿볼 수가 있다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인간 심리의 미묘하고 복잡한 진실을 파악하고 묘사하는데 있어, 그 철저함과 섬세함을 오직 과학자의 그것에만 돌릴 수 있겠는가. 인간성 탐구자(moraliste)들을 수없이 배출한 프랑스 전통에서 많은 것을 배웠을 스땅달이 자신의 글에 대해 가차없이 반성하는 것을 우리는 끊임없이 접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의문이 생긴다.

스땅달의 정확성에의 집착은 자신을 올바르게 알려는 노력의 제일보라 할 수 있겠다. 일찍이 어머니를 여의고, 영약스런 아버지, 심술궂은 이모, 보수적이고 엄격한 가정교사인 웃음없는 카톨릭 신부—비록 자상한 외할아버지와 멋쟁이 외삼촌이 있었지만—결에서 자라온 스땅달은 자신이 크게 행복했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런 상황에서 그가 집을 떠난 후에 피하는 인생수련의 도정에서 자기성찰의 계기를 갖게한 것이 일기였는데, 그 첫 신조가 정확한 생활의 기록이었다.

그는 일기에서 자신을 새삼스럽게 재발견하는 심정을 자주 토로하고 있는데, 타인들과 접촉함으로써 스스로도 몰랐던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놀라는 것이다. 그것은 타인과의 충돌일 수도 있고, 즐거운 만남일 수도 있으며 인간관계에서 오는 좌절일 수도 있다. 어쨌든 그와 같은 현상을 일기에 적음으로 해서, 그는 자신을 발견하고, 또 전과 다르게 변모

9) B. Didier, 위의 책, p. 108.

10) Stendhal, 위의 책, p. 182.

하는 모습을 보고 놀라워 한다. 한편 자신에 대해 무자비하다고 여겨지는 대목도 있으며, 앙리 드브레가 처녀들에게는 읽혀서 안된다고 할 정도의 노골적인 표현도 드물지 않다.

우리는 사소한 일에도 감동을 받고 눈물을 흘리는 그의 모습을 일기에서 자주 볼 수 있는데 이는 그의 감각이 지각보다 우세한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 때문에 계획은 치밀하게 짜고도 실천단계에서 어그러지고 마는 경우가 그에게 종종 일어난다.¹¹⁾ 특히 이러한 현상은 여성들과의 관계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우리는 그가 일기에서 자신을 발견하고 있으며; 이어서 자신을 새롭게 만들어 나가고 있는 모습을 엿볼 수 있다. 즉 스팡달은 일기에서 자신을 찾는 한편, 자신을 형성해 가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의 글쓰는 행위는, 독특하고 특이하며, 자신의 것만이 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럼 이제는 그의 일기와 그의 문학과와의 관계를 생각할 차례이다. 그의 초기 일기에 두드러진 점은 문학성이 배제되고 있다는 것이다. 19세기 프랑스 문학의 대표적인 작가인 스팡달의 일기에 문학성이 배제되어 있다는 말은 얼핏 보기에 아귀가 맞지 않는 이야기 같다. 그러나 그 일기를 쓸 당시의 스팡달은 아직 세상에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모든 것이 미정 상태인 젊은이로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져 하는 터여서, 어떤 예술적 배려가 개입될 여지가 없었기 때문에 그러한 말이 가능한 것이다.

물론 후기의 일기에선 문학적인 충동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초기 일기의 전반적인 인상은, 앞에서 언급한 대로 하루 하루의 생활, 독서, 만남, 연극관람 등 여러가지의 접촉과 그로부터 받은 영향과 인상을 즉각적으로 적고, 그에 대한 생각을 가다듬는 정도로 그치고 있다. 이렇게 글쓰는 사람 자신에게만 향해 쓰여진 일기는 문학성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왜냐하면 문학성이란 다른 사람이 읽을 것이란 가능성과 연관이 되어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¹²⁾

그러나 그의 일기에는 실생활과 함께 그의 꿈과 동경이 적혀 있다. 자신의 됴됨이는 자신이 상상하는 바의 것이기도 하다는 이야기도 있듯이¹³⁾ 자신의 올바른 모습을 일기에 그릴다는 것은 자신의 실생활과 꿈을 함께 쓰는 것이 될 것이다. 한 예로서 그는 1804년 7월 13일 정열의 나라 이태리에 대해 이렇게 쓰고 있다.

Un amant jaloux tue sa maitresse, âgée de quinze ans et d'une rare beauté; s'enfuit, écrit deux lettres(monuments précieux: les demander à Plana); revient près du corps de sa maitresse qui était dans l'oratoire de son père, vers le minuit, et s'y tue d'un coup de pistolet comme il

11) <La moindre chose m'emeut, me fait venir les larmes aux yeux, sans cesse la sensation l'emport sur la perception. Ce qui m'empêche de suivre le moindre projet.> (Stendhal, 위의 책, p. 237).

12) B. Didier, 위의 책, p. 105.

13) <Ce que l'on est, c'est aussi ce que l'on imagine> (B. Didier, 위의 책, p. 114).

l'avait tuée.

Chercher la vérité sur ce fait. Voilà qui me prouve de plus en plus que la douce Italie est le pays où l'on sent le plus, le pays des poètes.¹⁴⁾

사랑하는 남자가 질투 때문에 보기드문 미인인 열다섯살의 애인을 죽이고, 도망가서, 두 통의 편지를 쓰고(귀중한 자료, 브라나에게 그것을 부탁할 것), 자정쯤에 애인 아버지의 기도실에 놓여 있는 애인의 시체 옆으로 되돌아와 그녀를 죽인 것처럼 자신도 권총으로 자살하고 만다.

이 사실에 관해 그 진상을 알아볼 것. 그것이야말로 감미로운 나라 이태리에서는 사람들이 더 환층 강력하게 느낀다는 것, 이태리는 시인들의 나라라는 것을 더욱더 나에게 증명해주는 것이다.

정열의 나라 이태리에 대한 그의 꿈과 동경이 후일 그의 문학작품 속에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특히 그의 자서전적 소설 *Vie de Henri Brulard*와 이태리를 주제로 한 작품들인 *Chartreuse de Parme*, *Chroniques italiennes*에서 여러 형태로 두드러지게 형상화되고 있다는 것은 새로운 사실이 아니다. 사랑 때문에 살인까지 할 정도로 무분별한 이태리는 분별과 타산에 너무나 젖어 있는 프랑스에 비하면 그 넘치는 정열로 스망달에게는 꿈과 동경의 대상이었다. 그와 같은 이태리에의 동경이 그의 후기 문학 작품 속에 꾸준히 흐르고 있는 것을 보면, 그의 일기는 앞으로 그가 문학작품 속에 구현시킬 싹을 이미 품고 있었다고 말할 수 있으리라.

특히 그의 예리한 관찰력은 뒤에 보게 될 문학작품에 있어서의 독특한 필치와도 연관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일기에 나타난 꿈이 그의 문학작품에 깊이 배어 있듯이 일기에서 보여주는 관찰력 또한 이후의 문학 작품에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의 나폴레옹 묘사를 보자.

Nous voyons parfaitement B(onaparte). Il passe à quinze pas de nous, à cheval. Il est sur un beau cheval blanc, en bel habit neuf, chapeau uni, uniforme de colonel de ses gardes, aiguillettes. Il salue beaucoup et sourit. Le sourire de théâtre, où l'on montre les dents, mais où les yeux ne sourient pas: le sourire de Picard.¹⁵⁾

우리들은 아주 가까이서 B(보나파르트)를 본다. 그는 심오보쭘 떨어져 우리 앞을 지난다. 아름다운 흰 말을 타고, 아름다운 새옷, 장식 없는 단조로운 모자, 근위병들과 같은 대령의 군복, 건장을 하고 있다. 그는 손을 많이 흔들고 미소짓는다. 연극적인 미소로서, 치아를 보이지만 눈은 웃지 않고 있다. 삐까르의 미소.

인용한 나폴레옹의 묘사는, 후의 그의 문학작품에서 볼 수 있는 필치와 너무나 유사하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간결한 묘사이지만 읽는 사람의 상상력을 자극해주는 그의 독특한 문체는 이미 젊었을 때부터 형성되고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그의 일기에서 문학성이 배제되어 있다는 지적은 당시 문학 일반이 갖는 군더더기가 배제되어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그때의 문학풍조와 아주 달랐던 스망달의 문체와도 연관시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14) Stendhal, 위의 책, p. 96.

15) Stendhal, 위의 책, p. 97.

이다. 지나친 수사와 과장으로 가득찬 문장이 주를 이루고 있던 당시에 스팡달은 아주 단순하고 메마른 듯한 문체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그는 수많은 연극 관람평을 일기에 쓰고 있는데 작품과 연출 그리고 배우들의 연기에 이르기까지 여러 각도에 걸쳐 자신의 소견을 피력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그가 여러 번 희곡작품을 쓰고자 시도했던 발상의 근원을 일기에서 엿볼 수 있는 것이다. *Racine et Shakespeare*에서 보여주는 그의 당당한 논지도 그 근본은 일기에서 비롯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예를 들어 그는 1804년 8월 6일 일기에서 희극(comédie)이 성격을 묘사하는데 비해 비극(tragédie)은 정열만을 묘사할 뿐이기 때문에 희극이 비극보다 크게 우월한 것이라고 이미 쓰고 있다. 이처럼 연극에 대한 그의 생각은 매우 일찍부터 형성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19세기의 몰리에르가 되겠다는 야망을 품었던 그에게서 연극에 대한 관심과 탐구는 남다른 것이었다. 이 점 또한 그의 후기의 문학작품의 독특한 모습과 무관한 것이 아니다.

그런 한편 그는 일기에서 하루 하루의 일과 생각들에 관해 사실대로 쓰고 있으나, 자주 자신의 이름도 바꾸고 다른 사람의 이름도 바꾸는가 하면 장소도 변경하는 등 무엇인가 변형을 시도하고 있다. 그러한 시도는 엄격한 시선으로 파악한 현실에 자기 나름의 의미를 부여하여 그것이 어떤 다른 형태를 갖게 한다. 즉 독서, 연극관람, 샬롱 출입 등을 통해 얻은 지식을 바탕으로 형성된 그의 사상은 일기를 현실에 대해 단순한 기술의 차원으로만 머물러 있게 하질 않는다.

그것을 우리는 문학적인 충동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허식이 배제된 문체로 파악된 세세한 사실들, 그것들을 진실된 것으로 남게 하기 위해 진실된 것에 집착하는 그의 기질은 인위적인 연속성을 부여하지 않으려 한다. 하지만 파악된 사실들에 하나의 의미와 형태를 부여한다는 것은 어떤 연속성을 준다는 것이고 그것은 문학으로 간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 된다.

따라서 스팡달의 일기는, 얼핏 보기엔 무엇인가 서로 대치되는 경향의 결합처럼 보이기도 한다. 진실에 대한 집착, 어떤 형태의 것이든 허구가 필요한 문학, 이 두 개의 서로 모순되는 요구가 그의 짧은 날의 일기에서 어렴풋이 보여지며 후의 글에서는 더욱 두드러지게 된다. 특히 소설에 있어서 이와 같은 모순을 정리하고 자신이 쓰려고 했던 바를 글로 옮길 때, 작가가 겪는 갈등 또한 적지 않을 것이다.¹⁶⁾ 스팡달은 이러한 어려움에 대해 일

16) Le Monde의 문학단 서평에 Aliocha란 평자가 H. Troyat의 책을 평하면서 다음과 같은 말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이와 같은 어려움을 잘 대변해주고 있다.

Chaque roman est un combat, une interrogation, une épreuve. Si vous saviez les bouquins que j'ai écrits étaient beaux dans ma tête. Et puis une fois que la pensée descend jusqu'à la plume, les choses se déforment, pâlisent... Au fond, l'écrivain ne livre jamais que des à-peu-près de ce qu'il a rêvé.

개개의 소설은, 하나의 전투이며, 하나의 질문이며, 하나의 시련이다. 내가 쓴 책들이 내

기를 통해 미리 예비훈련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어쨌든 스망달은 자기 시대의 것과는 다른 형태의 문학을 시도함으로써 자신의 기질과 문학 고유의 허구사이에서 어떤 절충점을 찾은 것이 아닌가 한다. 그와 같은 성과를 얻는 데 있어 그의 일기를 내세운다면 지나친 판단이라 할 수 있겠는지.

발자끄가 *La Chartreuse de Parme*에 관해 작품 소개를 하면서 그에 대한 찬사와 비판을 동시에 하고 있는 것은 너무나 유명한 이야기이다. 당시 이미 문단의 대가인 발자끄의 충고에 따라, 스망달은 *La Chartreuse de Parme*에 손질을 가했으나 실패로 그쳤다. 그것은 두 사람 사이에 본질적으로 다른 면이 있었기 때문이다. M. 바르테슈도 지적했듯이 인물에 의해서 통일되고 있는 스망달의 작품에서 줄거리에 의해 통일된 작품을 보려했기 때문에 서로 아귀가 맞지 않았던 것이다. 그것은 그 작품이 당시의 큰 흐름과는 다른 형태의 문학이었기에 그렇다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당시 문단의 거장인 빅포르 위고는 스망달의 *Le Rouge et le Noir*를 네페이지 읽고 던져 버렸다고 한다. 1854년에 생트-비브는 스망달의 작가로서의 장점은 인정하면서도 그의 두 명작에 대해 아주 좋지 않은 글을 쓰고 있다. 유명한 언론인이며 정치 평론가였던 H. 로슈포르의 다음과 같은 글을 보면, 그 당시 스망달이 문단에서 어떤 대접을 받고 있었던가 알 수 있으며, 다른 형태와 내용의 문학이 과연 어떤 것인가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Lorsque j'habitais chez Victor Hugo, place des Barricades, à Bruxelles, en 1868, la conversation tomba un jour sur Stendhal, et je ne cachais pas au plus grand de nos poètes le souvenir admiratif que j'avais conservé pour l'œuvre de l'écrivain de *la Chartreuse de Parme* et du *Rouge et le Noir*. Victor Hugo me laissa parler, puis me dit froidement: «Je ne savais pas que vous puissiez comprendre le patois. Moi qui n'ai jamais étudié le jargon de M. Stendhal, je suis incapable de vous répondre.»¹⁷⁾

1868년 내가 브뤼셀의 바리카드 광장에 있는 빅포르 위고 집에 살던 어느 날, 이야기가 스망달에게로 미치게 되었다. 그래 나는 우리네 시인 중 가장 위대한 시인에게 『파르므의 수도원』과 『적과 흑』의 작가의 작품에 대해서 내가 품고 있던 감탄어린 추억을 감추지 않았다. 빅포르 위고는 가만히 듣고 있다가, 이렇게 차갑게 말했다. <나는 당신이 그 은어를 이해하는 줄은 몰랐소. 스망달의 은어(jargon)¹⁸⁾를 공부한 바 없는 나는, 당신에게 대답해 줄 수가 없군요.>

그리고 위고는 스망달의 작품을 읽으려 하면, 따르라기 소리가 귀에 거슬리듯, 눈과 머리에 거슬린다고 말하고, 자신은 그의 작품을 좋다고 하는 사람을 지적으로도 의심스런 존재로 생각한다고 말하고 있다. 알랭도 지적했듯이 위고의 문장이 운동(mouvement)이며,

머리 속에선 얼마나 아름다웠던가를 안다면. 게다가 일단 머리 속의 생각이 펜에까지 내려오면, 실체는 변형이 되고 창백해진다... 결국에 가선, 작가는 자신이 꿈꾼 것의 대충 어림잡은 것만을 내어주는 것이다. (Le Monde, 29 mars 1991)

17) Stendhal, *Vie de Henry Brulard*, Larousse, 1967, p. 102.

18) jargon은 어떤 학문, 기예, 사회에서만 특수하게 사용되는, 보통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용어를 가리키는 것으로 경멸적인 말.

리듬이고, 웅변이라면 스탕달은 고의로 끊어트리는 문장을 구사하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수많은 수사학적 표현이 특징과 매력을 부여하고 있는 샤프브리앙의 문장은 음악적이고, 시적인 데 반해, 즉시 쓰는 스탕달의 문장은 자신이 묘사코자 하는 바의 것을 미사여구로써 지체할 여유가 없다.

누구보다도 스탕달의 진가를 절실히 느끼고, 평생동안 그의 작품을 수없이 읽었던 앙드레 지드는 스탕달의 문체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재치있게 평하고 있다.

Le grand secret de Stendhal, sa grande malice, c'est d'écrire tout de suite (...) De là, ce quelque chose d'alerte et de primesautier, de disconvenu, de subit et de nu qui nous ravit toujours à neuf dans son style. On dirait que sa pensée ne prend même pas la peine de se chausser pour courir.¹⁹⁾

스탕달의 큰 비밀, 그의 크나큰 간교함, 그것은 즉각 쓰는 것이다... 거기에서, 저 무엇인가 민첩하고 충동적이며, 어울리지 않는, 갑작스럽고 현뵈는 것이 생기는데 그것이 그의 문체속에서 늘 재틀게 우리를 황홀하게 한다. 그의 생각은 신을 신지조차 않고 뛰는 듯하다.

스탕달은 자신의 관찰과 머리 속에 떠오른 생각을 즉시로 옮김으로써, 느끼고 생각했던 바를 큰 변형없이 글로 옮기는 기법을 일기를 쓸 때부터 이미 배우고 있었다. 우리는 그러한 문체가 자신을 알고, 또한 자신을 형성한다는 과정의 모체가 되고 있음을 그의 일기 속에서 찾아 볼 수 있었다. 그런데 그러한 문체는 당시의 문학적인 흐름과 달랐고 그 시대의 대가들의 문체와도 전혀 다른 것이었기 때문에 심지어 은어라는 말까지 듣게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그 문체는 내용과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었다.

스탕달이 죽고 난 다음, 프랑스 문단에 큰 파문을 일으키고 또한 큰 역할을 한 사실주의와 그와의 관계에 대해서도 조심스런 관찰이 필요하다. 흔히 사람들은 스탕달을 프랑스 사실주의 문학의 선구자의 한 사람이라고 평하고 있다. 물론, 그러한 논거들은 근거가 있으며, 그 작품들 또한 그러한 말을 들을 만큼 자기 시대에선 일종의 새로운 소설이었고, 일기의 문체 또한 사실주의 작가들이 표방한 진실된 묘사를 가능케 하는 독특한 문체이다.

그러나 1804년 6월 8일 일기에 스탕달은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Quel avantage de montrer la vie à l'homme sous son aspect défavorable? C'est un pauvre mérite.²⁰⁾

(사람의 삶을 그 불리한 면에서 보여주어 무엇이 득이 되겠는가? 그것은 보잘것 없는 가치인 것이다.)

Gallimard판 일기의 주를 단 텔 리프는 이 구절을 소위 스탕달이 사실주의자라고 주장하는 글들에 첨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에 따르면, 스탕달은 사실주의의 선도자이기는 커녕, 자기 작품의 인물들을 승화시키는 것을 항상 목표로 삼아왔다고 쓰고 있다.

19) André Gide, *Journal*, Gallimard, 1948, p. 1271.

20) Stendhal, 위의 책, p. 84.

그의 문체 또한 반드시 사실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그것과 같다고 단언할 수는 없다. 물론 주관적 사실주의니 객관적 사실주의니 하는 부가 형용사가 붙은 표현으로 구분을 하고 있지만, 후에 온 플로베르나 졸라 등과 한 테두리에서 스망달을 논할 수는 없는 것이다. 따라서 그에게 사실주의라는 용어를 부여한다면 그것은 그만이 갖는 독특한 사실주의가 될 것이다. 그런 면에선 벨 리또의 표현도 지나친 것은 아니다.

요컨대 그는 그 시대에 크게 위세를 떨치던 낭만주의의 과장된 문학적 흐름과는 다른 형태와 내용을 지닌 문학의 싹을 이미 일기에서 보여주고 있고, 문학이 본래 지니고 있는 장벽, 즉 쓰고 싶었던 것과 쓴 것 사이의 괴리를 극복하려는 노력을 일기에서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은 세상과 자기를 발견하는 과정으로서의 일기에 나타난 그의 독특한 문체와 깊은 관계가 있다.

그리고 사실주의 작가로서의 그의 면모가 후에 온 사실주의 거장들에게 어떤 영향을 준 사실은 부정할 수 없으나 스망달을 일률적으로 사실주의 작가의 무리 속에 집어 넣을 수는 없을 것이다. 19세기 후반에 위세를 떨쳤던 사실주의 이후 그 흐름에 반기를 든 새로운 형태의 사실주의자들 중에서 스망달을 찬양하는 작가가 많은 것을 보면 그의 독창성이 서로 다른 경향의 작가들로 하여금 그를 내세우는 것을 허용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사실주의(réalisme)의 정의 또한 단순하지 않으나, 그것을 예술가나 작가가 자연과 인생을 있는 그대로 미화시키지 않고 묘사하는 경향 혹은 현실을 속된 면에서 묘사하려는 경향이라는 식의 보통 프랑스 사전에 정의되어진 개념대로라면 그가 그러한 유파에 기계적으로 들어가지 않는 것은 확실하다.

그는 진정한 아름다움이란 바라보는 상대방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라고 후에 쓰고 있으며, 그러한 싹은 이미 젊은 날의 일기 속에 나타나고 있다. 그렇게 보면 스망달의 작품과 그의 실제 인생과의 관계는 대단히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고, 다른 작가와 유별나게 구별되는 특징의 하나가 그러한 현상이라고 하겠다. 이러한 스망달과는 반대되는 모습을 지닌 예를 알아보자.

시몽 레이스는 빅토르 세갈랭이란 작가에 관한 글을 쓰면서, 작가와 작품의 조화가 맞지 않는 경우로 프루스트의 예를 들면서, 자신이 연구한 빅토르 세갈랭을 그런 면에서 다음과 같이 옹호하고 있다.

Accomplir une œuvre et accomplir une vie semblent parfois deux entreprises mutuellement incompatibles. Sinon, comment expliquer que tant d'écrivains admirables soient de pauvres types, et que tant d'hommes admirables soient de pauvres écrivains? C'est que les grands artistes, dirait-on, créent *contre* eux-mêmes, ils réalisent leur œuvre au prix et à rebours de leur existence. Leur vie devient l'envers de leur création, ce n'en est plus que le résidu minable, quelque fois même malpropre. Il vaut donc mieux ne pas y aller voir de trop près (Proust, par exemple, nous avait bien mis en garde contre ce genre de curiosité, et d'ailleurs le loisir qu'on pourrait consacrer à lire sa minutieuse biographie par Painter serait probablement mieux employé à

relire la *Recherche du temps perdu*).²¹⁾

한 작품을 완성하는 것과 한 인생을 완성한다는 것은 서로 간에 일치할 수 없는 두 개의 기도처럼 때때로 보인다. 그렇지 않다면, 왜 그토록 많은 훌륭한 작가가 실 인생에서는 일간이이고, 그토록 많은 훌륭한 사람이 보잘 것 없는 작가인가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단 말인가? 위대한 작가들은 자신들을 거슬러서 창조한다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자신의 존재를 회생하고 그리고 자신의 존재와는 반대로 작품을 실현하는 것이다. 그들의 삶은 자기 창조물의 이면이 되고, 그것은 이제 보잘 것 없는 때로는 불결하기까지 한 찌꺼기 이외엔 아무 것도 아닌 것이다. 따라서 너무 가까이 가서 보지 않는 편이 좋다. (예를 들면 프루스트는 그런 종류의 호기심에 대해 우리가 경계심을 갖도록 해 주었다. 게다가 Painter가 쓴 프루스트의 상세한 전기에 바칠 수 있을 시간적 여유를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를 다시 읽는데 쓰는 것이 아마 더 훌륭하게 그것을 사용한 것이 될 것이다).

시몽 레이스의 의견에 따르면, 작가의 생애와 그의 작품은 별개의 것이나 마찬가지로이다. 프루스트의 경우 이 점이 특히 두드러지며, 위대한 그의 작품에 비해 그의 생애는 별로 작품 이해에 도움이 될 게 없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작품에선 무엇인가 뜻있는 업적을 남긴 빅 토르 세갈랭의 보잘 것 없는 생애를 살펴면서 상기 인용한 글과 같은 내용의 결론을 얻고 있다. 그렇지만 그것은 작품과 생애가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것보다는 서로 반대된다는 것을 강조한 흥미로운 글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견해는 스땅달의 경우엔 적용될 수 없는데, 왜냐하면 그의 작품은 작가인 그와 거의 일체를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 뜻에서 그의 대표작들의 주인공들인 줄리앵 소렐, 루시앵 퇴벤, 파브리스 델 동고가 같은 형제들처럼 보인다는 이야기는 우연이 아니다. 더 나아가서 그의 일기를 보면, 후에 쓰여진 그의 소설 작품의 주인공들의 모습과 호흡 그리고 열기를 느끼게 되는 일이 매우 자주 일어난다. 평자들이 지적하듯이 스땅달의 일기는 이처럼 그의 문학적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했고, 진지하게 자신이 산 시대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스땅달의 경우는 시몽 레이스의 주장과는 대치되는 위치에 있는 작가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하여 스땅달의 일기를 다음과 같이 소개한 앙리 드브레의 견해는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Le journal est donc un témoin fidèle et sincère de la formation psychologique et littéraire de Stendhal(...) Nous connaissons en même temps la vie matérielle d'Henri Beyle, successivement militaire, employé de commerce, fonctionnaire d'intendance, auditeur au Conseil d'Etat et, entre temps, voyageur et touriste. Il nous fait part de ses lectures, de ses études, de ses soucis d'argent, de ses rêves d'ambition, de ses projets d'avenir, et surtout de sa préoccupation constante et tyrannique: l'étude de cet égoïsme transcendant d'où est sorti le roman psychologique moderne.²²⁾

따라서 일기는 스땅달의 심리적이고 문학적인 형성의 충실하고 진지한 증인인 것이다. (...) 동시에 우리는 차례차례로 군인, 상점원, 제정관리공무원, 참사원, 평의원인 한편 여행자이며 관광객인

21) Simon Leys, *L'humeur, L'honneur, L'horreur*, Robert Laffont, 1991, pp. 53-54.

22) Stendhal, *Œuvres complètes t. 28*, Édito-Service S.A., Genève, 1961, p. XXVI.

앙리 벨르의 물질 생활을 알게 된다. 그 일기는 그의 독서, 공부, 돈 걱정, 야망과 꿈, 미래의 계획들 그리고 특히 변함없고 불가항력적인 그의 관심사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다. 그 관심사란 바로 거기에서 근대 심리 소설이 나온 탁월한 예고이즘의 연구인 것이다.

우리는 스땅달의 일기가 지닌 특징을 여러가지 측면에서 고찰해 보았다. 그 과정에서 우리가 특별히 주목한 사실은 이후에 그의 작품이 보여줄 독창성이 이미 젊은 날의 일기 속에서 엿보인다는 점이다.

또한 그의 일기는 자기가 산 시대를 증언하고 있다. 그러나 그에게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자신을 아는 것이었는데, 일기를 통해 그것을 시도함으로써 결국 그는 자신을 만들어 나가고 자신의 인격을 형성시켜나가게 되었다는 사실이다. 자신을 만든다는 것, 그것은 자신의 문체를 갖는다는 것과 또한 연결된 것이다.

하루하루 생활의 선별된 기록, 그 중에서도 예리한 관찰력으로 전개되는 여자이야기 같은 것은 하나의 특출한 예로 매우 흥미롭다. 여자를 정복하기 위해 세우는 치밀한 계획, 그리고 현실과 부딪혔을 때 그 계획이 어찌구니 없이 무산되는 것 등이 아무 꾸밈없이 적혀져 있는데, 그것은 후의 그의 작품의 분위기와 너무나 흡사하다. 특히 그의 수많은 연극관람평은 일찍부터 그가 얼마나 연극에 열중했던가를 잘 보여주고 있으며, 후에 그가 *Racine et Shakespeare*라는 책자를 통해 펴게 될 문학이론의 첫걸음이 제시되고 있다.

그의 일기 속에 나타나 있는 자기 자신을 분석하고 헤아리는 데서 보여지는 놀라운 정도로 예리하고 날카로운 관찰력은 진실된 것에 집착하는 그의 사상적인 성장과정이 어떤 것인가를 알려 주고 있으며, 당시에 문학계를 휩쓸고 있었던 과장된 미사여구를 피했던 그의 문체의 생성과정을 볼 수 있게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의 일기에서 논의 될 수 있는 문학성의 배제란 당시 유형하고 있던 문학계의 흐름에 적응치 못하던 또는 적응코자 하지 않았던 그의 태도와도 상관이 있는 것이다.

스땅달의 일기는 그가 읽고, 보고, 듣고, 생각한 것을 쓴 것으로 그가 자신을 만들어 나간 모든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그의 일기에서 그의 문학의 표현 형식인 글쓰기가 성립되는 과정과 그 내용인 그의 문학사상이 형성되는 과정 그리고 그 둘의 불가분의 관계가 어떻게 맺어지는가를 볼 수 있는 것이다.

스땅달은 놀라운 명석함을 지니고 일기를 통하여 자신과의 대화를 시도했으며, 그것을 통해 자신의 독특한 글쓰기를 확립한 셈이다. 그의 일기는 그의 문학사상을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델 리또도 지적했듯이 스땅달의 일기는 하나의 자료이기보다 하나의 거울이기 때문이다.²³⁾ 더 나아가 스땅달의 일기는, 그의 문학사상을 이해하기 위한 하나의 자료이기보다는 창조행위의 거울만큼 하나의 독립된 작품으로 보

23) Stendhal, *Œuvres complètes t. 28* (présentation de Del Litto), Edito-Service S.A., Genève, 1961, p. IV.

아도 되지 않을까.

무엇보다 그가 여러 문학작품에서 보여준 행복관의 참된 모습을 파악하기 위해서도 일기를 살펴보는 것이 유익하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그 일기는 그의 평생의 강박관념이 되다시피 한 행복에의 추구라는 집념이 어렸을 때부터 어떻게 짝트고 어떻게 구체화되어 나갔는지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Bibliographie

Stendhal, *Œuvres complètes*, Edito-Service S.A., Genève, 1961.

Stendhal, *Œuvres intimes I, II*, Edition établie par Del Litto, Gallimard, 1981.

Stendhal, *Vie de Henry Brulard*, édition présentée par A. Dulière, Larousse, Paris, 1967.

Beatrice Didier, *Stendhal autobiographe*, P.U.F., 1983.

André Gide, *Journal*, Gallimard, 1948.

Simon Leys, *L'humeur, L'honneur, L'horreur*, Robert Lafont, 1991.

〈Résumé〉

Etude sur le journal stendhalien**WON Yoon-Soo**

Nous avons examiné les traits caractéristiques du journal stendhalien sous ses divers aspects. Son journal relatait au jour le jour des faits de sa vie; mais ce qui était le plus important pour Stendhal, c'était de connaître le moi. C'est-à-dire que son journal, d'abord simple enregistrement de petits faits vrais et quotidiens, prend très vite un autre aspect et devient un moyen de connaissance de soi.

Pour Stendhal, «connaître le moi» au moyen du journal le mène à la création de son style; ainsi est-il parvenu à avoir sa propre écriture, et l'accomplissement de l'écriture de soi signifie la formation de soi.

A travers son journal, on peut lire tout le processus de la formation de Stendhal. Enfin il se créait en lisant, en pensant et en écrivant. Le journal de Stendhal est un témoin fidèle et sincère de sa formation psychologique et littéraire. Il faut donc, donner à son journal une autre signification littéraire, puisqu'il est le miroir de sa vie et de son rêve.

Et il serait bon de s'intéresser à son journal pour bien saisir l'idée du bonheur chez Stendhal.